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일대 전남개발공사의 옹릉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 일대. 검찰은 최근 전남도의 수사 의뢰로 개발공사 전 간부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혈세 40억 날린 전남개발공사 용역 특혜 의혹 드러날지 관심

전남개발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23일 시작되면서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할 사례가 법정에서 드러날지 전남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6개월 만에 전남개발공사 전 사장 A씨와 전 개발사업본부장 B씨를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정작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의혹 규명에는 실패, 앞으로의 재판을 통해 이같은 공금증들이 최대한 벗겨질지 지역민들의 시선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옹릉지구 특혜 의혹, 밝혀지나** =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엄상섭)는 23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개발공사 전 사장 A씨와 B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들이 옹릉지구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하는가 하면, ▲예산 성립 전 6개 업체와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공사 회계 규정을 벗어난 지출 위인행위를 하고 ▲토취장 공도 절차를 미뤄둔 채 공사 발주 및 착공부터 진행하는 방식으로 옹릉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 기소했

남약신도시 옹릉지구 관련 전 사장·본부장 오늘 첫 공판

평가위원 선정 과정 잡음 등 공금증 해소 여부 이목 집중

었다. 검찰은 또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개발공사 내 감리를 맡을 직원들이 있음에도, 6개 업체에게 책임감리용역을 맡겨 개발공사에 40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SOQ 평가(주관적 평가) 절차에서 친분 있는 공무원들을 평가 위원으로 선정, 6개 감리업체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점 등도 이들에 대한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전남개발공사와 업체의 유착 의혹을 둘러싼 공금증들이 말끔히 해소될지 주목된다.

◇**물음표 가득한 수사** = 현재까지 검찰의 기소 내용만 놓고 보면 A씨 등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전남도가 지난해 말 특정업체와 유착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에서 몇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거세다.

무엇보다 기소 내용에는 A씨 등이 '왜' 그렇게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했는지 빠져 있다.

또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을 자격 미달인 설계자문위원회에 '전문가' 자격으로 포함시켰고, 이들을 SOQ 평가 위원으로 선정, 감리업체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자연스럽게 뒤따르지만 공소 사실에는 이같은 설명이 담기지 않았다.

이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 6개 업체가 평가를 거쳐 낙찰을 받았고 이 중 2개 업체의 경우 A씨 등과 친분이 있다고 파악하면서도 검찰은 이 부분에서 밝혀낸 것이 거의 없다. 검찰이 계속 추적까지 했는지에, 핵심 의혹 규명에는 실패하고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서도 "증거로 말하는 사람들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통해 이 같은 의혹들을 최대한 벗겨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천동 버스터미널 건너편 48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추진

광주 최대 교통혼잡지역 건축허가 날까

서구에 건축계획 심의 신청
광주시 건축위원회 판단 주목
“조망권 침해·교통난 심화”
전문가·지역 주민 지적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건너편에 48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상가와 아파트 등이 들어서게 될 이 건물은 계획대로라면 높이가 153.8m로, 호남 최고 빌딩이 될 전망이다. 건축 허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광천동 52-7번지 외 6필지에 지하 4층, 지상 4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건설을 위한 건축계획심의 신청서가 최근 접수돼 광주시에 심의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H건설 자회사가 추진하는 이 건물은 대지면적 6953㎡, 연면적 6만7465㎡ 규모로 1·2층에는 상가가 조성되고 1~5층엔 방송국이 들어선다. 6~48층에는 전용면적 84.98㎡의 공동주택 168세대, 84.97㎡의 공동주택 82세대 등 총 250세대가 쌍둥이 빌딩 형태로 건설된다. 지하층엔 주차장(570면)이 조성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계획심의 신청

서를 접수받은 서구는 광주시 건축조례(8조)에 따라 최근 광주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광주시 건축조례는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에 앞서 광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도시 미관, 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도록 한 것이다.

심 의 사항은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

이용계획과 적정성 ▲공공시설·공급처리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과 관계 ▲교통처리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도시경관 및 야간 경관에 미치는 영향 ▲주변 건축물과 조화 ▲조경 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성 등 13개 항목이다.

교수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건축계획서 ▲투시도 또는 조감도 ▲배치도 등 10여가지 도면을 검토한 뒤의 결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건축 심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교통혼잡, 조망권 및 경관 침해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해당 건물이 들어서면 부지는 종합버스터미널과 백화점 및 마트 등 대형유통 시설과 인접한데다 인근에 특급호텔·면세점 건립까지 추진되고 있어 광천동 일대의 교통이 더욱 혼잡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주변 아파트와 주택 주민 일부는 조망권 침해도 우려된다.

노경수 광주대 교수(도시계획)는 “버스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가 밀집한 광천동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까지 들어서게 되면 교통난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교통난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층 이상 못짓는 상록회관 부지, 15~27층 아파트 건립 추진

서울개발업체 ‘중 변경’ 요청
왕벚나무 군락지 기부채납 밝혀
시 “채납 규모 늘려라” 보완 요구

광주 상록회관 부지를 매입한 서울지역 부동산개발업체가 15~27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광주시에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냈다. 지역민들의 보전 현행법상 일부 부지의 경우 5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지만 사업계획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개발업체는 왕벚나무 군락지 일부를 ‘기부채납’ 하는 방안을 덧붙여 광주시에 제출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DS네트웍스는 최근 상록회관 부지에 15~27층 규모의 아파트 12개 동(1082세대·16만9721㎡)건설 계획을 담은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DS네트웍스는 또 왕벚나무 군락지 중 3375㎡(1020평)를 보전해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도 신청서에 포함했다.

해당 상록회관 부지 중 5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는 1층 일반주거지역(1만4300㎡)이 포함돼 있는 만큼 해당 개발업체의 사업계획서는 사실상 1층 주거지역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라는 게 광주시 안팎의 설명이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층수 제한이 없는 ‘중 변경’ 요청과 해당 개발업체의 왕벚나무 군락지를 기부채납하는 개발업체 의견과 연계해 해석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광주시의 허가 여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광주시는 일단, ▲공원 기부채납 비율을 늘릴 것 ▲왕벚나무 군락지와 상록공원을 공원으로 연결, 기부채납해라 등의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심의가 남아 있어 현재로서는 선불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만,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기부채납 규모를 좀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DS네트웍스는 지난해 10월 1일 상록회관 부지 4만8952㎡(준주거지역 3만6730㎡·1층 일반주거지역 1만2222㎡)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구입한 바 있다. 상

록회관 매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지역민들은 도심 녹지 공간인 상록회관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유명 외식사업가 부친 성추행 논란

○유명 외식 사업가의 부친이자 전 충남도 교육감 출신인 80대 남성이 20대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

○22일 대전전산경찰에 따르면 대전 지역 모 골프장 캐디인 20대 여성 A씨가 지난 6월 모 골프장 인근에서 B씨(81)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

○경찰은 B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를 마쳤는데, B씨는 경찰에서 “한평생 허튼 짓 않고 살아왔고 암 수술도 4차례나 받아 건강이 악화됐는데, 누군가 나를 욕보여 이득을 보려는 것 같다.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 /연합뉴스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건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이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